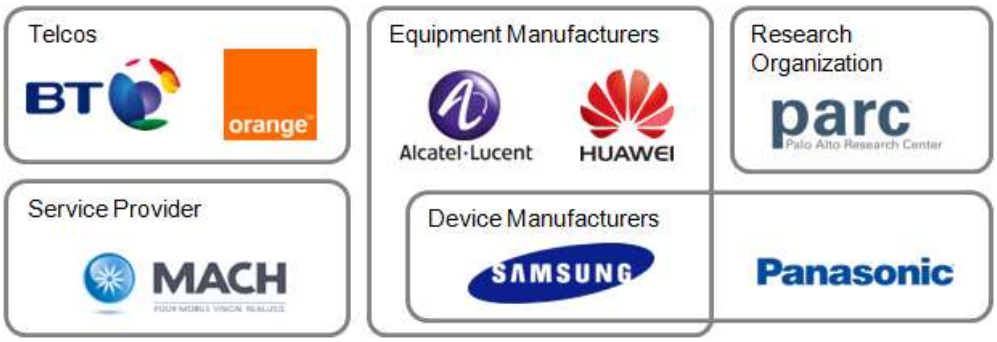
Future Internet Forum
Newsletter
<17호> 2012.07.16

ENC (Emerging Networks Consortium) 컨소시엄 출범

Architecture WG
이병준 (삼성 종합기술원)

금년 3월에 출범한 ENC 컨소시엄 창립 멤버들의 첫 번째 모임인 ENC Summit이 4월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PARC (Palo Alto Research Center)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ENC 컨소시엄은 미래 인터넷의 유망한 아키텍처 기술로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CCN (Content-Centric Networking)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주도할 에코시스템 (Eco-system)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사업자, 장비/단말 제조업자 등 8개의 창립 멤버로 구성되었다.



* ENC 8개 창립 회원사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실시간 비디오 영상 분배 및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양의 폭증, 나날이 늘어나는 소셜 네트워킹의 확산에 따른 보안, Privacy 이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사용자가 전달, 분배, 혹은 소비하고자 하는 컨텐츠 자체를 네트워킹 기술의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 (Content-based Networking)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와 기술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CCN 혹은 NDN (Named Data Networking) 기술은 그 중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컨텐츠 중심의 네트워킹 패러다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인터넷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구조 혁신 트렌드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 제안된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 (Eco-system)의 구축과 모든 Value-Chain 구성원들이 Win-Win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ENC Summit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으로 CCN 기술의 점진적 Deployment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 시나리오 발굴과 전략 도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 표준화 이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중국의 Huawei사가 CCN 기반의 Seamless Mobility 지원 기술을 데모하였으며, 삼성과 PARC사도 단말, Home Networking 환경에 CCN 기술을 적용한 사용 시나리오와 데모를 시연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의 속도를 가늠해 볼 때 어쩌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빠르면 2~3년 내에 접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관련 추가정보: http://www.parc.com/services/focus-area/emerging-networks-consortium/